

# 美 파트너사 6천만 달러 투자유치 대응제약, '펙수프라잔' 임상 박차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신약)

뉴로가스트릭스, 내년 임상3상 소화기질환 치료제 개발 가속도



대응제약 전경.

대응제약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신약 '펙수프라잔'의 미국 판매 파트너사인 뉴로가스트릭스가 6000만 달러(약 696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비보캐피탈이 주도한 이번 시리즈B 투자에는 기존 투자자이자 헬스케어 분야 최고의 벤처캐피탈 그룹인 5AM 벤처스, 벤바이오, 오비메드에 더해 RTW인베스트먼트, 삼사라바이오펀딩, 마셜웨이스가 새로운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뉴로가스트릭스는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오는 2022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펙수프라잔의 임상 3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주력 파이프라인인 소화기질환계열 치료제 개발을 가속할 전망이다. 뉴로가스트릭스는

2018년 투자 받은 시리즈A 투자(4500만 달러)와 함께 이미 1억 달러를 상회하는 투자금을 확보했다.

전승호 대응제약 대표는 "이번 뉴로가스트릭스의 시리즈B 투자유치는 펙수프라잔이 미국에서 성공 가능성 높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평가받은 결과"며 "앞으로도 대응제약은 소화기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뉴로가스트릭스와 함께 펙수프라잔을 세계 최고의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짐 오마라 뉴로가스트릭스 대표는 "소화기 질환을 겪고 있는 수백만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투자 유치로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해가겠다"고 말했다.

뉴로가스트릭스는 소화기질환 치료제 전문회사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로슈·암젠·GSK·아이언우드에서의 개발 경험을 지닌 최고경영진들이 포진하고 있다.

지난 6월 대응제약과 펙수프라잔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펙수프라잔의 임상·개발·허가 및 판매를 담당한다. 대응제약은 계약시점에 뉴로가스트릭스 지분의 5%를 받았으며 추후 IPO 시점을 기준으로 총 13.5%까지 확대된 지분을 확정적으로 양도받을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CJ프레시웨이가 농산물 패키징센터에서 계약 채배한 농산물을 상품화해 출하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

## 산지농산물 하루만에 식자재마트에 공급

CJ프레시웨이, PS센터 역할 확대

CJ프레시웨이가 외식사업장, 단체급식 등 B2B(기업간 거래) 경로를 통해 유통되던 계약채배 농산물의 판로를 대형 식자재마트로 넓힌다. CJ프레시웨이는 운영 중인 농산물 패키징센터(이하 PS센터)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것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CJ프레시웨이는 각각의 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다 보니 품질 관리와 규격표준화가 어려웠지만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경로로 판로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PS센터가 본격 가동하면서부터는 산지에서 구매한 농산물을 PS센터로 모은 뒤 소분, 포장 등 상품화 과정을 거쳐 해당 권역 내 사업장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 곳에서 모든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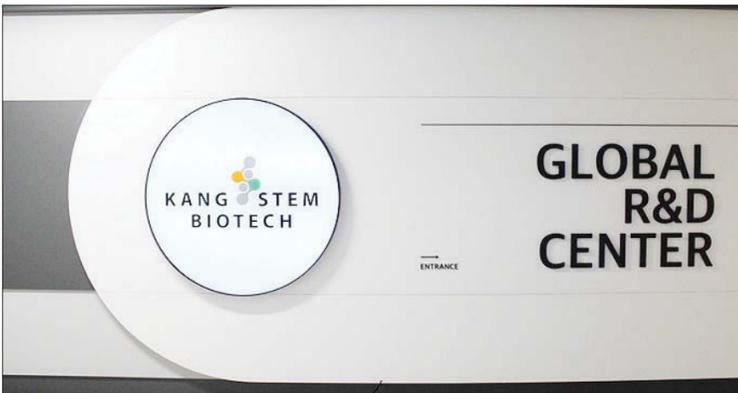
이 가능하기 때문에 품질관리와 규격 관리가 가능해 상품성도 높아졌다. 특히 산지에서 출하한 농산물을 상품화해 유통하는 데까지 하루면 충분하기 때문에 산지의 신선함을 그대로 식탁에서 즐길 수 있다.

앞서 CJ프레시웨이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주에 수도권 PS센터(826㎡·250평)를 가동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경상북도 청도에 동부권 PS센터(562㎡·170평)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두 곳의 PS센터를 통해 채소, 버섯, 과일류 등 약 100여 품목에 대해 하루 평균 최대 80t의 주문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강스템바이오텍, 글로벌 R&D센터 문열어

글로벌 세포치료제 기업 포부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 개발



강스템바이오텍이 서울시 가산동에 글로벌 연구개발(R&D) 센터를 개소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이 글로벌 연구개발 확대에 나선다. 연구소를 확장, 이전해 글로벌 세포치료제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서울시 가산동에 글로벌 연구개발(R&D) 센터를 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시작 후 광명시 소재 연구소로 확장·이전했다가 이번에 가산동에 글로벌 R&D센터 개소하게 됐다.

강스템바이오텍은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을 면역질환과 퇴행성 질환 겨냥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피부오

가노이드 제조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인공피부 등에 대한 신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 아모레퍼시픽, '라이프 뷰티'로 사업 확장

창립 76주년 기념식 비대면 개최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지난 6일 창립 76주년을 맞아 라이프 뷰티로 사업을 확장하고, 초개인화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일 메타버스에서 디지털·비대면 형식으로 개최된 기념식에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올해 화장품 사업을 웰니스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과 트렌드에 맞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마케팅을 새 동력으로 제시했다.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진행된 기념식 행사는 서경배 회장의 76주년 창립 기념사와 장기 근속자 축하, 2025년 비전을 선포하는 식순으로 진행됐다.

영상을 통해서 회장은 "누구나 자신

만의 아름다움을 실현하여 진정한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뉴 뷰티(New Beauty)'의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는 뉴 뷰티에 관해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역동적인 세상의 한 가운데에 있다"며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한 과거의 방식과 규칙은 오늘의 세상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 재편 방안으로 바이오·더마 등의 고기능 영역과 건강을 위한 웰니스(Wellness) 카테고리를 집중 육성해 라이프 뷰티로 사업을 확장할 것을 발표했다. 또 세밀하게 축적된 고객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별 최적화된 초개인화 뷰티 솔루션을 제

공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해 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영역 전반에 걸쳐 교감하며, 아모레퍼시픽의 비전이 모두가 미래가 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국내외 임직원, 장기근속 수상자 등이 사무실과 자택에서 메타버스에 참여해 9월 1일부터 3일 3일간 축제 콘셉트를 즐기는 것으로 76주년을 기념했다.

본사 내 주요 공간을 메타버스에 구현해 회사에 대한 체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임직원들은 공간 접속 후 캐릭터를 설정하고 아이템을 장착한 뒤 장기근속자 명예의 전당 축하 메시지 남기기, 회사 역사 퀴즈, 방탈출 게임, 헤리티지 보물찾기 퀘스트 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블랙야크,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SNS 게시물 업로드로 참여 가능

블랙야크가 강원도관광재단과 함께 10월 10일까지 3회에 걸쳐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6월부터 블랙야크는 강원도관광재단과 함께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강원도 20대 명산을 등반 후 국내 최대 산행 커뮤니티인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BAC)' 어플에서 인증하는 방식이다.

이번 SNS 이벤트는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에 도전하는 BAC 회원이라면 개인 SNS에 게시물 업로드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먼저 첫번째 이벤트는 '강원 20대 명산 MZ스타일'로, 이달 12일까지 강원 20대 명산에서 자신만의 스타일과 포즈를 사진으로 촬영해 인증하면 된다. 기간 내 우수 인증자 1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두 번째 이벤트 '착한 흔적 마운틴'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강원 20대 명산에서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등산하는 '클린 산행' 인증을 한 100명을 추첨해 커스텀 드라이백을 증정한다.

마지막으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20대 명산 최다 인증' 이벤트가 있다.

/원은미 기자

## 깨끗한나라, 생활용품 정기배송 서비스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서 신청 접수

깨끗한나라가 구독경제 트렌드에 맞춰 네이버 브랜드스토어를 통해 '생활용품 정기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정기배송을 이용하는 고객은 배송희망일, 배송주기, 횟수, 자동결제 등의 설정을 통해 번거로움을 덜면서 저렴하게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 정기배송이 가능한 제품은 화장지, 키친타올, 미용티슈, 물티슈, 손소독 티슈, 비데 물티슈 등이며 깨끗한나라 브랜드 스토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깨끗한나라는 고객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매 고객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바탕으로 가구 형태에 알맞은 세트상품 구독도 기획하고 있다.

최근 1년간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입수 제품의 경우 1~2인으로 구성된 독립가구에서 판매가 두드러졌다. 특히 18롤 이하 화장지 제품의 판매가 독립가구에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해 소입수 화장지 제품과 함께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의 물티슈, 키친타올, 미용티슈로 이뤄진 구독상품도 판매 예정이다. /원은미 기자